

“125만명 목표” 광주 백신접종센터 5개구 설치 본격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설 명절 이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도 시민 125만명(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백신접종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 5개구에 접

**초저온 백신 보관·대규모 수용 가능 우선 조건
의사·간호사·행정요원 등 필수인력 100여명
대학·실내체육관 현장점검 뒤 부대시설 설치**

센터 설치를 위해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실내시설을 중심으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광산구 접종센터 설치 장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주까지 순차적으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예정시설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150만명 중 18세 이하 25만명을 제외한 125만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접종센터는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대학과 실내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관리돼야 하고 해동이후 6시간 이내 접

종, 자연환경이 필요해 지하시설은 배제했다.

교통 편리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의료기관 접근성, 충분한 주차 공간 등도 갖춰야 할 조건이다.

접종센터 장소가 선정되면 광주시는 곧바로 부대시설 설치 작업과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접종센터는 백신 보관 장소, 접종자의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는 '30분 대기공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백신접종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한 곳의 센터당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최소 22명이 필요함에 따라 100여명을 확보해

운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백신 접종센터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접종센터 장소를 확정된 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분류한 우선접종 대상자 기준을 토대로 접종을 시작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광주시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각각 1480명, 710명으로 늘었다.

기동취재본부

박우량 신안군수, 대구 마을공동체 감사패 받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꽃’ 전달 감사 의미 담다”



신안군은 21일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 김영숙)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3월 31일 코로나19로 지쳐가는 대구·경산시민들을 위해 ‘힘내세요!!

대구·경산시, 1004선 신안클럽 희망의 봄을 드립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신안군민의 정성과 희망을 담은 톨립 화분을 대구시에 1004개, 신안군 자매도시 경산시에 1004개를 신안 임차도에서 재배한 톨립 7,000본, 전남 마을활동가들이 수집한 3,000송이의 꽃까지 총 1만송이의 꽃을 전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보여주는 애기 동백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며 두손모아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안=이택주기자



코로나19 유치원 전수검사

24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운동 한 유치원에서 방역당국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곡성군, 전남 최초 석곡 시가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곡성군은 상가가 밀집돼 있는 석곡면 석곡로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2000㎡에 30개 이상의 상점 등이 밀집해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등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136억원을 투입해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전남도, '순천 대중교통 종사자' 긴급 전수 검사

잇단 확진자 발생에 1654명 선제 검사

전남도는 순천시의 택시운전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긴급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남 700

명(순천 230명) 확진자가 순천시 택시기사로 확인돼 순천시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1654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 들어간다.

도는 23일과 24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20

명을 긴급 투입하고 순천시 택시 운수종사자 1243명을 검사했다.

이어 25일, 26일에는 의료인력 5명으로 구성된 이동검체팀이 가곡동 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411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도 검사하게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다중을 상대하는 확산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